

윤석열 파면...본격 대선 정국

현재 “尹 위헌적 계엄”
취임 1천60일만 ‘자폭’
6월 3일 차기 대선 유력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에 결국 파면됐다.

<관련기사 2.5-7.8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 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지난해 12월 3일 위헌 및 불법적 계엄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회 진출입을 차단하고, 군인을 동원해 국회 본관 내부에 진입하여 인원을 끌어내라고 한 점과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하는 등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계엄 선포 이후 122일만이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1060일만으로 임기 5년 중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6월 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열린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심판에서 주문을 통해 파면을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11시 22분에 대



윤석열 파면 선고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했다고 밝혔다.

<사진=MBC뉴스 유튜브>

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현재는 당초 예상과 달리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으며 반대 의견도 없었다.

이번 현재 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위법·위헌적 요소 △위헌적 포고령 1호 선포△국회 장악 의결방해 시도 △군 동원 영장 없이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이다. 이에 대해 현재는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우선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른바 ‘계몽령’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고, 군·경력을 동원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점을 지적했다.

현재는 ‘국회 본회의의 계엄해제 시도를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으며,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제시된 야당 주도의 입법 갈등이나 예산안 충돌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는 또 “군병력을 동원해 선거관

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까지 내리는 등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일련의 위헌·위법 행위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현재의 이번 선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기각)과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인용)에 이어 세 번째이다. 또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타임스 최준호 대표 칼럼〉

대한민국, 다시 정상 국가로

2025년 4월 4일, 이날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길이 남을 중대한 분기점이자,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이 열리는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오늘의 이 판단은 단지 한 개인의 권력을 내려놓게 한 결론이 아니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 꼭꼭 눌러왔던 국민의 분노, 정의에 대한 갈망, 그리고 문명국가로서의 자존심이 헌법의 이름으로 터져 나온 역사적 순간이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든 반민주,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단죄이며, 정상사회를 향한 첫 발걸음이다.

‘민주적 근육’ 작동의 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 헌법이 살아 있음을, 그리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했다. 절망이 일상처럼 반복되던 지난 몇 개월, 수많은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북풍한설, 엄동설한 속에서도 시민들은 광장을 지켰고, 불의에 맞서 싸웠으며, 그 모든 외침이 결국 현재의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응답받은 것이다.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오랜 시간 쌓아온 ‘민주적 근육’의 작동이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자유와 정의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나라를 지켜냈던 선조들의 희생,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거리에서 싸웠던 이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촛불을 놓지 않았던 시민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상국가를 향한 시작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이제야 진정한 출발선에 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단지 과거를 끌어냈을 뿐,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준비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무너졌던 사회시스템, 탈법과 폭력에 무뎠던 법치주의, 극우세력의 준동, 극심한 양극화와 공정, 상식의 붕괴 등 우리가 마주한 과제는 너무도 많다. 그렇기에 ‘사회 대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

수이며, 이 혁명적 전환은 단호하고도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도, 침묵했던 기득권, 방조했던 언론, 분열했던 진보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할 대상이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윤석열’을 반복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상국가’를 위한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첫걸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선, 조기 대선을 통한 합법적 정권교체와 함께 민주·진보 진영과 함께 국민 대통합이 시급하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국가 개조’ 수준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국정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이 주인임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권력의 주인이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자주독립국가,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정상국가를 향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무리 위대한 제도도, 결국 그것을 지키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다.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회 곳곳에 뿌려내린 부조리와 싸워야 한다.

2025년 4월 4일은 끝이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날이다. 오늘의 결단은 새로운 헌정 질서를 세우는 출발점이자,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거대한 도약이다. 국민이 지켜낸 헌법, 민주주의, 그 위에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지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언제나 그랬듯이.



전북, 지속가능 수소산업 민·관·산·학·연 협력 강화

RE100 수소분과 회의
‘청정에너지 로드맵’ 가속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수소분과’ 회의를 열고 2025년 운영계획과 주요 현안을 지난 4일 논의했다.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는 정책·수소·풍력·분산e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수소분과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도내 유관기업 및 기관과 협력해 청정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정기회의 및 포럼 일정·주제 △수소 상용 모델링 등 산업 조성 내실화 방안 △수소기술

원 설립을 위한 쟁점 논의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수소상용차·특장차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수소특화단지 활성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22~23일 개최되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및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관련 내용도

공유됐다.

전북자치도는 박람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최신 동향을 알리고, 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역량 있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2036 하계 올림픽 후보도시 전북 전주

이제 전북이
세계와 경쟁합니다

저비용 올림픽·친환경 올림픽·지방도시 연대 올림픽
한계를 넘어 세계를 향해
K-문화수도 전북이 이제 세계와 경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너진 민주주의·민생경제 회복하자”

윤 탄핵 각계반응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과 관련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123일 만에 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우리 민주당 앞에 놓여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윤석열 파면은 윤석열의 망상이 만든 위헌·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필연적 판결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고 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지켜냈다”



안호영 의원

안호영 국회의원은 4일 <갈등의 시대를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갑시다>라는 입장을 통해 “오늘 우리는 역사 앞에서 또 하나의 큰 고비를 넘었다”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며 대통령 위헌에 국민이 있고 권력 위에 헌법이 있다는 헌정의 원칙을 지켜냈다”고 환영했다.

안 의원은 “혼란 속에서도 헌정질서를 지켜낸 현재의 책임있는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지켜냈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며 “오늘의 변화는 그 소중한 하나하나의 힘이 모여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적 심판 받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이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반영한 결과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무능을 드러냈으며 권력기관을 사유화해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됐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 위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국민이 직접 세운 정의로운 역사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저항, 봄 맞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4일 현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로 인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무도한 계엄령과 위헌적 폭거에 맞선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이 마침내 봄을 불러왔다고 환영 논평을 냈다.

이 논평은 “시민들은 무장한 군인들과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섰고 농민, 노동자뿐 아니라 이 나라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이 영하 20도의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남태령을 넘었고, 눈보라를 온몸으로 맞으며 윤석열 파면시키겠다는 열망으로 123일을 버텼다”며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전북도민의 투쟁으로 윤석열을 파면시켰다”고 설명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핵 폭주와 생태계 파괴, 기후위기 가속화로 시민

의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했던 윤석열의 폭정은 마땅한 파국을 맞았다”며 “그러나 윤석열의 파면만으로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끝나지 않고 윤석열 정권과 그 폭정을 가능케 했던 구조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결정 환영



남관우 의장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등 35명의 의원 일동은 “오늘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의로운 결정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으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여러 논란과 갈등을 초래해 왔고 국정 운영의 독단적 태도와 정치·사회적 갈등을 방치하며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심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는 “이제 정치권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과 민생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에 전주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시스트 대항 승리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4일 드디어 내란수와 윤석열에 대한 현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왔다고 환영의 논평을 냈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윤석열과 극우세력, 국민의 힘 파시스트들에 맞서 일궈낸 정의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

리, 국민의 승리다”며 “한겨울 썩은 아스팔트를 녹이며 윤석열 탄핵을 목 놓아 외쳤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내란수괴 결과 당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4일 현재의 윤석열을 대통령의 지위에서 파면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참여자치는 “그동안 국민들은 애가 타는 심정으로 가슴을 졸여야 했고 속이 문드러지는 고통을 인내해야 했다”며 “헌법 정신과 국민적 상식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이번 판단은 군사반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승리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절제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며 “혹독한 겨울바람과 한밤에 내린 폭설도 민주주의의 수호를 향한 국민들의 의지와 합성 앞에 장애가 될 수 없었다”고 적시했다.

정치적 불신 해소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4월 4일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든 내란수와 윤석열 파면에 대해 국민들의 단합된 힘의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혼란한 정세와 압박 속에서도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헌신해 준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고, 훼손된 민주주의의 회복과 비상계엄으로 극심한 타격을 받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



<사진=전북자치도>

김 도지사, 도민안전·민생경제 회복 논의

탄핵심판 후 긴급회의

핵심과제 정부 선정 최선

전북특별자치도가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흔들림 없는 현안업무 추진과 도민 안전, 민생경제 회복 등의 논의를 위해 지난 4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실국장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해 △2036 하계올림픽 국제 유치 경쟁 대응 △메가비전 프로젝트 대선 공약 반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민생경제 회복과 안정화 방안 △지역 안전관리 강화 △불법 대형산불 특별대책 중점 추진 △국가 주요동향 대응 소방관서 경계태세 강화 등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탄핵 인용 결정은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불법행위라는 것을 입증했다”며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승리로 귀결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정치적 진영이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었다”며 “탄핵으로 인해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수습하고, 기존에 해오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차분하게 점검하는 도

정의 흔들림 없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계엄사태 이후 초래된 도민들의 어려움을 생생히 청취하여 행정 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림픽 유치 대응 및 SOC 조기 구축, 대광법 통과 후 후속조치 등 도의 중요한 현안과 새만금 내부개발 같은 대항국책사업이 국정과제 등으로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메가비전 프로젝트’ 중 대선 후보자들의 발언과 정당별 정책 방향을 분석해 지역공약으로 제시하고, 도정의 최우선 현안인 2036하계 올림픽 유치가 새로운 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원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업무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집중력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 바란다”며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을 위해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업무에 임해줄 것”을 실국장들에게 지시하고, 민감한 시기임을 감안해 어느 때보다 더 엄격한 자세로 비상근 무태세를 확립하고 실국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달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방향 확정

13개 시군·21,743필지 대상 경계 분쟁 해소·재산권 보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열어 도내 13개 시군, 54개 지적 재조사지구에 대한 심의를 지난 4일 완료했다.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및 도민 재산권 보호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 실제 이용 현황과 등기부상 도면 불일치를 바로잡고, 경계 분쟁을 예방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 대상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심사했다. 이를 통해 경계 확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각 시군이 재조사 대상 필지 경계를 확정하고, 주민 의견 반영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군-LX-대행사업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지적 경계 불일치 해소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라형은 전북자치도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지적 정보는 스마트시티와 AI 기반 공간정보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국회 탄핵소추대리인 공동대표 김이수 “국민은 현재 믿었다”

“현재가 있기에 민주주의 성숙”

윤석열 대통령 현재 심판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대리인 공동대표로 활동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우리 국민들은 현재를 믿었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김이수 공동대표

수 있었고,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혼란을 멈추게 했고 평화를 회복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2월25일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그 사이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사 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 석방되는 국민

들이 예상하지 못하던 사태가 전개됐다. 이는 법원의 무리한 법 해석에 따른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이례적인 즉시 항고 포기로 빚어진 사태였다”고 법원을 질타하기도 했다.

김 공동대표는 “마땅히 임명되었어야 할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한 뒤에 “지속된 위헌 상황에서 대리인단과 국민들은 애타게 선고기일 지정을 기다려야 했다. 기다림은 길었고, 구

구한 억측과 추론이 난무했고, 국민들의 고통은 더해갔으며 우리 대리인단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탄핵 심판 지연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이수 공동대표는 전북 고창출신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제22대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조선대학교 이사장 및 법무법인 공공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전북 출신 법조인이다.

/서울=김영목기자



닥나무 재배지 확대 한지 원료 국산화 속도

환경청·익산시·신협중앙회, 익산시 닥나무 5천주 식재
전통한지 원료 공급 안정·한지 산업 자생력 확보 기대

한지의 보고장인 전주시가 닥나무 재배지를 익산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전통한지 원료의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와 전북지방환경청, 익산시,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지난 4일 익산시 왕궁면에 사 닥나무 식재 행사를 가졌다.

이날 식재 행사는 지난해 7월 체결된 전북지방환경청-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익산시-신협중앙회간 '왕궁 측사 매입지 닥나무 식재 및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결실로, 전주시를 비롯한 참여기관은 6092㎡ 부지에 약 5000주의 닥나무를 함께 심었다.

당시 협약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과

익산시는 닥나무 식재 부지 제공 및 묘목 관리를 담당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전주시는 닥나무를 수매해 한지 원료로 사용하고, 신협중앙회는 닥나무 묘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전주시는 익산 왕궁지역 닥나무 식재를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한지 산업을 되살리고, 한지 원료 국산화를 통한 전통보존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그동안 전통한지 원료 국산화를 위해 닥나무 재배농가를 지원하는 등 원료 자급화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재배지역을 익산 왕궁까지 확대하면서



전주시와 전북지방환경청, 익산시, 한국환경보전원, 신협중앙회, 전주문화재단은 지난 4일 익산시 왕궁면에서 닥나무 식재 행사를 가졌다. <사진=전주시>

자급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지 원료인 닥의 국내 수급처를 확대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지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전주한지의 품질 우수성을 확보해 세계적인 한지 문화 확산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제55회 전북기능경기대회 개막…“전북 최고 기능인 가려”

38개 직종 283명 선수 경연
도 경기장 시설 관리 만전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 고재철)는 숙련기술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55회 전북기능경기대회'가 오는 7~11일까지 전주공업고등학교 이외 도내 9개 경기장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제55회전북기능경기대회는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가 주관하며, 전북자치도 우수기능인을 발굴·양성하고 지역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대회는 통해 참가 선수들은 5일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고의 숙련기술인을 가린다.

이는 지난해보다 4개 직종 31명이 증가한 자동차 정비 등 38개 직종 283명 규모로서 모바일로봇, 가구, 폴리메카닉스, 산업용로봇, 목공예, 주조 등 6개 종목이 추가되면서 미래 산업에 대응하

는 우리지역 숙련기술인들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 메달, 상금이 수여되며, 오는 9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9.20~9.26)'에 '전북 대표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직종의 기능사 자격시험이 면제되며, 산업기사 필기시험 응시자격도 부여된다.

지난해 전북 선수단은 경상북도에서 열린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102명이 참가해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 우수상 6개, 장려상 12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 참가하는 전북 숙련기술인들이 한층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량을 발휘해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많은 기대가 모아졌다.

고재철 지사장은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숙련기술의 발전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숙련기술인



'제55회 전북기능경기대회'가 오는 7~11일까지 전주공업고등학교 이외 도내 9개 경기장에서 시작된다. 사진은 자동차정비직종금메달리스트 경기 <사진=전북자치도>

의 성장을 위해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지원하고 최상의 환경에서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전했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능인은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

이라며,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기능경기대회 자세한 내용은 전북자치도청 일자리민생경제과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2025년 융복합 SW강소기업' 5개사 지원

17일까지 신규 5개사 선정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도내 소프트웨어(SW)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융복합 SW강소기업' 5개사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북 도내 본사를 둔 업력 3년 이상 SW·IT 분야 법인사업자로, 상시 근무인력 10인 이상,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10~25억 원 이상인 기업이 다.

지원 기업은 전북디지털융합센터에서

구성한 외부 전문 심사위원단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5개사가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은 10년간 '전북 융복합 SW강소기업' 자격을 부여받는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강소기업 간 체계적인 교류협력 활동 지원 △SW·IT 분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SW 분야 최신 연구 동향 및 업계 정보제공 △SW강소기업 우수사례 발표 및 전시 기회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또 SW강소기업 육성사업 내 △우수 아이디어 제품화 R&D 지원 △강소기업

패키지 지원 △기업당 2천만 원~최대 6천만 원 혜택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b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북디지털융합센터 SW진흥팀으로 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사업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SW기업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북자치도와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대

응하고 도내 SW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SW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5개사를 발굴·육성해왔다.

김재전 전북자치도 디지털산업과장은 “도내 SW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SW산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SK하이닉스와 탄소중립 기술 협력

농업환경과 ESG 경영 연계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업환경 분야와 산업계 이에스지(ESG) 경영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상재 농업환경부장이 경기도 이천 반도체 전문기업 에스케이(SK)하이닉스를 4일 방문해 농업환경 분야 중점 추진 사업(온실가스 감축, 재생유기농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에스케이하이닉스로부터 이에스지 경영 내용을 소개받고, 반도체 생산공정을 둘러봤다.

양측 실무자들은 자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 바이오차와 토양 탄소 관리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풍하

축진 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농촌진흥청이 재생유기농업과 관련해 추진하는 풋커름(복비)작물 종자 보급 사업과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이에스지 경영 전략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상쇄와 관련해 농업 부문에서의 탄소 감축 기여 가능성을 크게 평가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토양 탄소 저장 방법론 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와 산업계가 상생하는 민관 협력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연구개발, 실증사업, 정책 제언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전북, 익산어양초에 멸종위기식물 전달

'NH교실숲' 제 18호 조성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익산어양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녹색교실 'NH교실숲' 제18호를 지난 4일 조성했다.

행사에는 김성훈 본부장과 윤영숙 전북도의원, 정성환 익산교육장,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 임복균 익산어양초 교감 등이 참석했다.

이날 'NH교실숲 제18호' 현판식을 갖고, 25학급 560명의 학생들에게 멸종위기 Ⅱ급식물인 파초일엽과 아레카야자 등 560그루를 전달했다.

'NH교실숲'은 학생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지구살리기 등 실천적 환경 교육을 위해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식물을 담은 스미 화분은 버려진 소재를 업사이클링한 투명페트병으로 제작됐다. 이번 교실숲 조성으로 인해 교내에는 연간 이산화탄소 94kg 및 미세먼지 281g이 흡수되고, 산소 1,146kg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멸종위기 식물을 양육한 ㈜트리플래닛은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학교에 제공한 560그루의 공기정화식물만큼 또 다른 멸종위기식물 560그루를 양육해 생물 다양성 보존 사업을 이어나간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 '해양수산창업아카데미' 발대…우수 창업자 자금 지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2025년 해양수산창업아카데미 발대식'을 지난 4일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 교육은 모집공고 및 평가를 통해 최종 14명을 선정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교육을 통해 도내 해양수산 분야 혁신적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실질적 창업 인재를 육성할 예정이다.

올해 해양수산 창업아카데미는 9주 동안 △해양수산 관련 법규 △사업계획서 작성법 △온라인 마케팅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 등 실질적인 창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존 창업아카데미 수료자 중 우수 선배 창업자의 사례발표 및 창업아이템 투자유치 클라우드 펀딩 교육을 통해 해양수산 창업기업들의 초기 안착과 초기 자금 확보 어려움을 해결해 빠른 시장 진입 발판 마련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 종료 후 우수 아이디어 평가회를 통해 5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은 사업 확장 기회를 마련해 전북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지역별 센터 공모사업에 전북자치도가 선정돼 올해로 4년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2025년 해양수산창업아카데미 발대식'을 지난 4일 진행했다. <사진=바이오진흥원>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 본 사업 참여기업 67개사는 매

출 15.8% 성장 및 134명을 신규 고용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김영태 기자

尹 파면에 전북 교육계도 ‘활짝’

서 교육감 “사필귀정” 모든일은 결국 바르게 바로잡힌다”
중계 지켜본 학생 “짧은 인생동안 탄핵 두 번 봤다 이젠 그만”
교원단체 “탄핵 선고에 따른 조속한 국정·교육 정상화 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가운데 전북 교육계가 활짝 웃었다.

4일 오전 11시 22분 전주에 위치한 전라고등학교 2학년 8반 학생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학생들은 선고가 내려지자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며,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몇몇 학생들은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안도했고, 한 학생은 “이게 이렇게까지 끌어야 할 일인가?”하며 아쉬워했다.

전라고 2학년 안현(16) 학생은 “사회 시간에 배웠던 헌법이나 헌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볼 수 있어 뜻깊었다”며 “얼마 살지 않았지만 18년 동안 탄핵을 두 번이나 봤다. 다음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맞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번 선고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도교육청의 계기수업 권고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글 볼 수 있었다”며 “이번 계기수업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산 교육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거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서 교육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국민은 경악 속에 헌법이 유린당하는 과정을 지켜봤고, 4.4 오늘 우리는 헌법이 강건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필귀정” 모든 일은 결국 바르게 바로잡힌다”고 강조했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탄핵 선고에 따른 조속한 국정·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4일 오전 11시 22분 전주에 위치한 전라고등학교 2학년 8반 학생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사진=전라고등학교>

전북교총 이날 입장문 통해 “헌재의 탄핵 심판 청구 인용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 지역사회가 함께 국정 혼란을 극복하고 교육 안전을 위해 단합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치적 혼란 속에도 학생들의 배움이 중단되지 않도록 교육계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성명서에서 “12.3 계엄의 밤으로부터 123일, 탄핵 소추의 결 111일 만에 헌재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며 “다시는 반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 세력의 확실한 처벌과 함께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윤석열, 이주호가 망친 교육현장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중앙도서관, 지역 청년작가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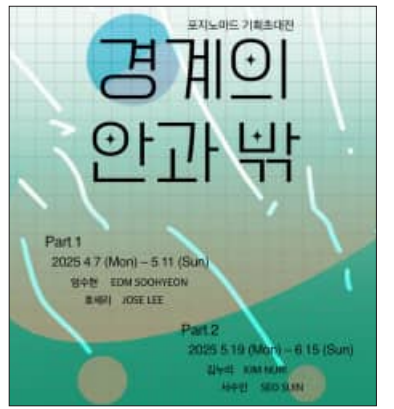
‘경계의 안과 밖’ 기획초대전
미술시장 진출 힘든 지역작가 지원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설동훈)이 대학 내 도서관 공간을 활용해 지역 청년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출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중앙도서관은 오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중앙도서관 1층 중도라운지 갤러리에서 지역 청년미술작가 그룹 포지노마드(김누리, 서수인, 엄수현, 이권중)의 기획초대전 ‘경계의 안과 밖’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상대적으로 작품 발표 기회가 적은 지역 청년작가들에게 대학 내 다중이용 시설을 전시장으로 제공해 미술시장 진출을 돕고, 역량 있는 지역 예술인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국가거점대학의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 작가들은 각자의 개성 있는 작품세계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 미



술계의 대표적 청년 예술가들이다.

참여 작가로는 ▲김누리 작가 ▲서수인 작가 ▲엄수현 작가 ▲이권중 작가 등이다.

설동훈 전북대 중앙도서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더욱 넓은 미술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2025 전주 올해의 책’ 필사 릴레이 첫 주자 모집

시민 100명 7월 말까지 진행
기억에 남는 장면·문구 필사

책의 도시 전주시가 가족, 친구, 이웃 등과 함께 ‘2025 전주 올해의 책’을 읽고 필사하는 릴레이 독서운동을 전개한다. 전주시는 오는 7월부터 21일까지 전주독서대전 누리집(www.jjbok.kr)을

통해 ‘2025 전주 올해의 책’ 필사 릴레이에 참여할 첫 주자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

필사 릴레이는 ‘2025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세상(강경수 저, 창비) △베프 떼어 내기 프로젝트(김근해 글·김다정 그림, 개안나무) △페이스(이희영 저, 현대문학) △어떤 어른(김소영 저, 사계절) 등 총 4권의 책 중 신청한 도서

를 읽은 후,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문구를 자유롭게 릴레이로 필사하는 활동이다.

첫 주자는 신청 부문 도서와 노트를 가까운 시립도서관에서 수령하고, 책을 읽고 필사한 뒤 전주독서대전 누리집 내 ‘필사 릴레이 코너’에 한 줄 결과 다음 주자 알리를 남기면 된다.

이후 다음 주자도 같은 방식으로 20일

이내에 도서와 노트를 전달하면 된다.

필사 릴레이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주자는 운영 종료일 전까지 가까운 시립도서관으로 도서와 노트를 반납하면 된다. 한편 ‘2025 전주 올해의 책’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도서관본부 책문화산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재근 기자

우석대, 9년 연속 ‘취업연계 중점대학’ 선정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에 9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가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마련하고, 전공과 연계된 기업에서의 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수행해 온 우석대학교는 지난해까지 30억 4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재학생 1420명에

게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도 우석대학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3억 9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100여 개 기업과 협력, 학생들의 희망 직무에 맞는 산업체 실무 중심의 국가근로장학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 총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실무 경험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에도 학생들이 전공과 연계된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4일 이틀간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2025학년도 학업중단예방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는 학교 담당 교사의 업무 내용 숙지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학업중단률을 낮추고, 학업중단속려제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고등학생 학업중단률은 2022년 1.79%, 2023년 1.95%, 2024년 1.99%로 증가 추세다. 다만 학업중단속려제 참여 후 학업 복귀율이 2022년 58.6%에서 2024년 62.3%로 높아지면서 속려제 운

영이 학업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지역사회 연계 상담·체협 프로그램 지원 강화, 대안교육 기회 확대 등을 포함한 2025년 학업중단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상담 및 개입 전략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발굴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 등이 진행됐다.

/최성민 기자



유정기 부교육감, 고창서 행정실장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4일 고창교육지원청에서 유정기 부교육감 주재로 행정실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고창 지역 공·사립 행정실장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설명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행정실장들은 교육재정 운용,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업무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내놨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고창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행정실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내 손으로 심는 푸른 미래” 정읍시, 식목일 행사 성황

정읍시가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내장산에 단풍나무 1000그루를 심으며 푸른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산불 예방 캠페인도 함께 펼쳐 더욱 의미를 더했다.

시는 4일 내장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과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심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용산동 내장산 자연휴양림 내 임야(산27번지) 1ha에 시목인 단풍나무 4년생 묘목 1000여 본을 식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시는 청명·한식 등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 산불예방 및 불법소각 금지 캠페인을 병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내가 심은 나무가 자라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시민기록 해설 전문가 도슨트 양성과정 진행

익산시가 시민 주도의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기록 해설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4일 ‘시민기록 해설과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도슨트 양성과정 2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지역의 기록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접 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정이다. 지난 1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총 5강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기록유산의 가치와 익산 시민역사기록관(문이화 교수) △시민기록 해설과 스토리텔링(박성호 교수) △시민기록의 이해와 도슨트의 역할(김정배 교수) △발표의 기획과 구성, 퀄리티 있는 스피치 전략(이종훈 아나운서) △시민기록 해설 실습 및 전문가 피드백(김정배 교수)이다.

한편, 이번 도슨트 양성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의 도슨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 또는 전화(063-859-4622)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고난도 사례 관리 대상자 첫 통합사례회의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를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지난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상담 내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은 총 9개로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군산문화초등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아가페 지역아동센터 △우리 지역아동센터 △군산장애인복지관이 참여하여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참여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사례 회의를 개최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자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예비 국제회의 지구 확정

전북 유일 유치 성공 3년간국비1억5천만원지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5년 예비 국제회의 지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전북 유일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예비 국제회의 지구’는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2028)’에 따라 신설된 제도이다. 특히 기존 광역도시 중심의 ‘국제회의복합지구(고양,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경주)’를 확대해 국제회의 개최 역량이 있는 중소도시를 지원하여 지역 국제회의 개최 역량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군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여수, 울산, 원주와 함께 예비 국제회의 지구로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4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중대형 회의 시설을 중심으로 지구 내에 숙박시설과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대규모 점포 등 다양한 집적시설이 연계된 것이 특징이다.

군산시도 군산새만금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존, 상업시설 존, 관광 및 레저 존을 포함한 388만㎡ 지구를 다각도로 활용하는 제안을 선보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제회의의 유치 및 마케팅 강화 △지구 내 편의 환경개선

△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 △민관협력 관계망 구축(관계 기관·전문가·관광(숙박)시설 민관협력체 운영 및 정기 간담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북과 군산시는 최대 3년(2년 지원, 평가 후 1년 추가 지원)간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국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울러 ‘국제회의복합지구’로의 승격 기반 마련,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군산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집적시설’(호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및 ‘이색 지역 명소’를 활용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현율 익산시장 “오로지 민생 안정 집중”

4일 긴급 대책회의

탄핵 여파로 혼란 우려

정현율 익산시장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을 강조했다.

정현율 시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후 긴급회의에 간부공무원을 소집하고 탄핵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계엄 이후 불안감이 높아진 지역 사회가 탄핵 여파로 혼란이 가중될 것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정 시장은 간부 공무원들에게 “정치가 어지럽게 요동치더라도 시민의 삶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행정이 가깝게 다가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 차분하게 민생을 보살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흔들림 없이 민생 안정을 챙길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모색됐다. 주요 안건으로 △지역 경제 안정 대책 △집회·시위 안전 대응 △공직 기



정현율 익산시장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사진=익산시>
강 확립 △대통령 선거 일정 대비 등이 다뤄졌다.

시는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골목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위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한 지역 혼란에 대비해 경찰과 협조해 시민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정현율 시장은 “몇 달간 이어진 어지

러운 상황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피로감과 불안감을 느껴셔야 했다”며 “앞으로 익산시는 오로지 민생 안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시대든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올바른 길을 만든 것은 시민의 지혜였다”며 “행정은 시정을 단단하게 챙겨가며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혼란한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위해 선제적 대응

신규·계속 사업 79건 선정

정읍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주요 신규·계속 사업 79건(총 1조 6311억원)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및 실과소장 등 간부공무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국가예산 중점사업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발굴한 신규사업 39건(총사업비 9998억원)과 기존 계속사업 40건(총사업비 6313억원)에 대한 대응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주요 사업 중 기획재정부 일괄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공평·북면 국도대체 우회도로(22호선)



신설(2130억원) ▲칠보·임실 덕치 국도(30호선) 개량사업(1040억원)이 일괄 예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동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392억원)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건립(365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301억원) ▲연지동 뉴빌리지 공모사업(250억원) ▲황토현 전적 종합정비(120억원) ▲농기계 통합센터 신축(90억원)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이 집중 논의됐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논리 개발과 타당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발품 행정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혼란 최소화해 나가자”

민생 안정·경제 회복 ‘전남’

강임준 군산시장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 선고된 4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깨어있는 시민의 단합된 힘이 지켜냈다”라며, “이제는 시민 일상과 지역 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만큼 각자 자리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국정 공백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주문하며, 지역 경제와 민생에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지시했다.

특히 “소비·투자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비롯해 내수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행정과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하도록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임준 시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공직선거법상 개최할 수 없게 되는 각종 행사·축제 등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판단해 진행 여부 및 시기에 대한 빠른 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용동면 ‘새미르휴센터’ 문 활짝

체육관·카페 복합 힐링 공간

익산시가 용동면민의 쉼터인 ‘새미르휴센터’의 문을 열고,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본격 나간다.

시는 4일 정현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미르휴(休)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준공식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용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마침표를 찍는 자리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문화·체육·복지 등 기초 생활 기반 시설

을 확충해 농촌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미르휴센터를 조성하고, 용동면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에 준공된 새미르휴센터는 다목적 체육관과 마을카페를 갖춘 복합공간이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체조·웃음치료 △바리스타 교육 등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산불 이재민 재방문

이학수 정읍시장이 산불 피해로 임시거주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소성면 이재민들을 다시 찾아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시장은 정읍시가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산불 피해를 입어 소성면 구룡경로당에서 지내고 있는 이재민 12명을 재차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피해 주민과 현장에서 헌신

하는 소성면 새마을부녀회, 정읍시자원봉사센터,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연대와 지원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 시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며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읍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노후·파손도로 재포장 추진

군산시가 봄철을 맞아 관내 주요 도로 중 노후되고 파손되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구간을 대상으로 재포장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깨끗한 군산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오래된 도로포장을 절삭 및 재포장하게 된다.

재포장 대상 도로는 ▲작년 10월 주요 도로 노면 상태 조사에서 확인된

파손 구간 ▲폭설 및 제설작업으로 인한 도로 파임(포트홀)로 파손된 구간이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도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요 도로인 공단대로, 대학로, 해방로, 외항로, 번영로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구간부터 가장 먼저 재포장이 시행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4.4만세운동 106주년 기념식 개최

익산시가 4.4만세운동의 합성을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4일 ‘익산 4.4만세운동 106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기념관 4.4만세운동기념공원

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익산시가 주관하고 익산4.4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행사다. 일제강점기 익산시민들이 보여준 항일 의지와 민족 자주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율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장, 부호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 80여 명이 참석해 106년 전 익산 남부시장에서 울려 퍼졌던 독립의 외침을 기렸다.

행사는 전춘식 익산항일독립운동기

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의 환영사, 전영철 4.4만세운동기념사업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기념사와 축사, 독립열사 후손 인사, 헌화, 참석자 전원의 만세삼창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문용기, 박성영, 김치옥 등 독립열사 3명의 후손이 직접 참석해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자긍심 있는 지역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익산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역사 기념사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군, 공공하수도 대대적 정비

신규계속 등 16개 지구 사업비 1492억원 투입 내년 착공 국비 확보 총력

고창군이 올해 16개 지구, 총사업비 1492억원 투입해 공공하수도(하수관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그간 고창군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노력

을 기울여왔다.

올해는 신규사업 3개 지구와 계속사업 13개 지구 등 총 16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예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 2026년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이다.

각 지구별 신규사업 규모는 △용반 농어촌 마을하수도 관로매설(L=4.5km, 처리장 신설 65㎥/일, 배수설비 160가구) △조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관로매설(L=2.9km, 처리장 신설 50㎥/일, 배수설비 121가구) △흥덕 하수관로 관로매설(L=4.8km, 배수설비 250가구) 등이다.

올해 준공예정 사업은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아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무장·해리·성내 농어촌 마을하수도 등 5건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천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하수처리시설과 관로는 도시의 혈관과 같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하수 인프라 확충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선정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 지역맞춤형 평생학습 협업체계 구축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교육부 주관 ‘2025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인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에 공모신청돼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은 우수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광역)·평생학습도시·지역대학 및 기업연계를 통해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기초지자체를 넘어 도시 간 또는 광역차원에서 평생학습자원을 연계·협력하는 컨소시엄형 사업으로 고령화, 인구소멸 등 지역의 열악한 학습환경 개선과 평생학습 접

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로컬학습시대를 여는 전북형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은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해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주시, 익산시와 함께 원광대학교, KTCS 등 지역 교육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될 예정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공유, 공감, 공학, 공존의 학습테마를 중심으로 민-관-학이 협력체계를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적인 교육 제공으로 학습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평생학습 서비스인 ‘달리는 모두배움터’ △지역 특화 학습공간 ‘로컬공방형 마을배움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30+ 이로운 디지털생활’ △지역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로컬-MOOC 학습콘텐츠 구축’ △지역사회 문제해

결형 ‘로컬 플러스 프로젝트’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해 우수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이어 이번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 선정을 통해 김제시가 지역을 선도하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으며 지역 간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모두의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와 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이 선순환되는 학습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북형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MOU체결, 스터디클럽 운영 등 협업기관과 함께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탄소중립 2천5백본 나무 식재

라벤다·황매화 등 15ha 조림사업 159ha 숲가꾸기 추진

봄의 기운이 완연히 접어드는 길목에 부안군은 지난 4일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부안 해돋마루 지방정원에서 실시했다.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는 숲’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군의회, 부안군 산림조합, 일반군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라벤다, 황매화, 가우라꽃 등 2,500본의 나무를 심으며 건강한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공유했다.

군은 또한 산불예방 캠페인 및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홍보를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 산불로 막대한 산림이 훼손돼 안타깝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이 회복의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조림사업, 병해

충방제,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중한 자연환경인 산림자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산불예방을 위한 마을 방송 및 산림 인접지역 8ha 파쇄지원을 추진했으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15ha 조림사업 및 159ha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2025 꽃빛드리 축제 호응 속 마무리

세대·사랑·주체·지역 등 연계 젊음·사랑 아날로그 감성 수익금 일부 산불피해 기부

꽃과 함께 청춘의 아름다운 봄날을 물들인 2025 꽃빛드리축제가 관광객과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동안 김제시 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5 꽃빛드리축제는 ‘젊음’과 ‘사랑’, ‘공동체’와 ‘지역’을 잇는 아날로그 감성과 꽃처럼 빛나는 청춘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따스한 햇살과 함께 어우러진 봄꽃은 축제장을 더욱 빛나게 했으며 청춘의 감성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또,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김제만의 공간적·계절적 매력을 충분히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세대 간 연계를 위한 ‘젊음을 잇다’ 사람 간 연계를 위한 ‘사랑을 잇다’ 주제 간 연계를 위한 ‘공동체를 잇다’ 지역 간 연계를 위한 ‘지역을 잇다’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고 소통을 통한 감정연



꽃과 함께 청춘의 아름다운 봄날을 물들인 2025 꽃빛드리축제가 관광객과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사진=김제시>

결 지역상권과 인접 시·군의 연결을 통해 다양함을 이어주는 축제로 거듭났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해 꽃빛드리가 소소한 일상의 감동을 전해주는 축제였다면 2025 꽃빛드리축제는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향수와 낭만적인 감동을 선사하는 축제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가족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축제장에서는 산불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먹거리부스의 수익 일부를 기부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심덕섭 군수, 인구문제 군민 관심·협력 독려

심덕섭 고창군수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군민의 관심과 협력을 독려했다.

캠페인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이기하수 인프라 확충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덕섭 군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이기하수 인프라 확충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이기하수 인프라 확충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이기하수 인프라 확충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최승준 군수와 이정환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을 지목했다.

고창군은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인구감소는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에 대한 일 보전복지부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여러 기관 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장준영 부산동래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자매결연도시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의회, 윤석열 대통령 파면 환영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인용 결정에 대해 “헌정사에 새겨질 역사적 사건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부안군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현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누구도 헌법위

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민주적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부안군의회는 앞으로도 민생의 최일선에서 군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하반기 구도심 간판정비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예쁜간판꾸미기사업’ 공모에 선정돼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사업을 통해 동서9길에서 동헌4길에 이르는 660m 구간에 부분별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간판 디자인을 통해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 구간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 완료한 김제역~김제경찰서~요촌성당입구에 이르는 중

양로 및 화동길 간판개선사업을 잇는 연결 구간으로, 시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 극복을 위해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살린 매력있는 거리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김제시의 아름답고 활기찬 변화의 방향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산불 피해 이재민에 성금 전달

고창군이 고창·정읍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일 정읍시 구룡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모금된 성금과 구호물품을 산불 피해 이재민에 전달했다.

성금 전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회 회장이자, 성금 모금에 참여한 고창군 기관단체장(LX고창지사, NH농협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고창·대성·선운산·흥덕·해리 농협, 고창신협, 고창새마을금고, 고창군산림조합, 고창자원봉사센터,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 등이 참석해 산불피해자들을 위로했다.

고창·정읍 산불피해 위로금 모음은 고창군청 전 직원 모금 운동을 시작으로 전 군민 모금 운동으로 확대됐다.

고창군 기관·단체와 전역의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총 2858만원을 모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적극 육성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제 활력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하며, 상인 조직의 신청을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점포 수 기준을 3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조정하고, 면적 선정기준에서 도로·주차장·광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했으며, 해당 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또한 삭제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시설현대화, 마케팅 지원, 소비촉진 행사 등 정부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 중이며, 상인 전체명부·절반 이상의 동의서·해당구역 도면 등을 지참해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마실축제 추진위, ‘이웃기웃 마을투어’ 참가자 모집

부안군 대표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문)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부안 해돋마루 지방정원에서 개최되는 제12회 부안마실축제 프로그램인 ‘이웃기웃 마을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웃기웃 마을투어는 축제장에서 출발해 관광버스로 부안의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산들 바다 투어와 붉은 노을 투어 2가지 코스로 구성된다.

산들 바다 투어는 격포해수욕장, 수성당 유채꽃밭 등 명소를 지나 오디농가를 방문해 체험을 진행하고 붉은 노을 투어는 내소사, 곰소항을 거쳐 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체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부안마실축제에 관심 있는 가족 및 개인 누구나 온라인 폼을 활용해 신청 가능하며 참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투어 프로그램 담당자로 문의하거나 부안마실축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 밀 제빵학교 리빙랩 네트워크 운영

부안군은 지난 3일 부안청년UP센터에서 부안 밀 제빵학교 리빙랩 네트워크를 운영했다.

이날 리빙랩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교육지원청,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및 지역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본계획, 공간구성, 프로그램 및 실현 가능성 세고 등 부안 밀 제빵학교의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논의했다.

리빙랩이란 지역주민과 행정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법을 기획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시도하는 방식으로써, 부안군은 리빙랩 네트워크를 통해 구축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안 밀 제빵학교의 설계 및 공간구성 등의 운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밀 제빵학교를 통해 부안 밀의 가치가 높아지고 전국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전국 밀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주산지로서 ‘미래 먹거리 국산 밀 허브 부안’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산 밀 관련 전문 베이커리 인재 육성과 관광·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지난 3월 원광대·부안교육청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 드론·AI 스마트 영농관리 본격화

남원-LX공사 업무 협약 ‘농뷰’ 시스템 구축 추진

남원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2025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 사업 일환으로 스마트 영농 관리 서비스 ‘농뷰(Nong-View)’ 구축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최근 고해상도 드론 영상 기술 및 AI 분석 기반의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골자는 △고해상도 드론 영상 촬영 및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드론 영상 및 AI 기반 조사료 생산관리 및 농지 이용실태 조사 △비닐하우스 운영관리 지원 서비스 개발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원시는 드론 및 AI 기술을 기반의 조사료 생산관리부터 비닐하우스 운영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리까지 스마트 영농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협약 추진을 필두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필지별 정밀 촬영 등 생육단계별 드론촬영 추진△영농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AI플랫폼 활용 영농관리 행정서비스는 서비스 테스트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농관리의 어려움을 드론 및 AI 기술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핵심사업 ‘만경강 통합하천’ 이달 첫 삽

유희태 완주군수 1호 공약 씨름공원·파크골프장 우선

유희태 완주군수 1호 공약 사업인 만경강프로젝트의 핵심사업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이 이달 중 첫 삽을 뜬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은 국가하천인 만경강 구간 중 삼례, 봉동, 용진, 고산 등 4개 권역에 걸쳐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오는 2032년까지 19개 사업, 42개 시설에 총 291억 원을 투입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수변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22년 해당 사업이 환경부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실시설계 용역을 본격 추진해 왔다.

종합계획 수립 초기부터 전북지방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이달 중 설계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하천정용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 1호 공약 사업인 만경강프로젝트의 핵심사업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이 이달 중 첫 삽을 뜬다. <사진=완주군>

특히, 기존 친수지구로 관리돼 온 봉동 씨름공원과 구만리 파크골프장을 우선순위 사업지로 선정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씨름공원 일대에는 모래씨름장, 관람스탠드, 모래놀이터 등을 조성하고, 파크골프장은 생태 주차장과 연계해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삼례, 용진, 고산 등 나머지 권역에서도 지역별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친수지구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만경강 통합하천 자문협의체’를 운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완주의 미래 경쟁력을 키울 핵심 프로젝트”라며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수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의회, “민주주의 승리·국민 주권 실현”

윤석열 탄핵 인용 성명 발표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하고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국민 주권의 실현”이라며 이를 강력히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순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민주주의를 유린한 지 122일만에,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헌법 질서를 되살린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누구도 범 위



에 설 수 없으며, 헌법과 국민을 배반한 자에게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줬다. 군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과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특히, 손종석 의장은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이번 대선은 단지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내란 동조 세력과 반민주 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회, 尹 탄핵 인용 결정 “환영”

“군민과 자치권 수호” 다짐

완주군의회(의장 유익식)가 지난 4일 의회 앞 광장에서 실시된 ‘윤석열 파면! 완주군민대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헌문란과 헌정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의회는 내란에 동조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완주군도 자치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를 지켜낼 것을 약속했다.

유익식 의장은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민주주의를 수호한 결과”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춘향제 3차 추진 보고회 행사 안전관리 대책 집중 논의

남원시는 지난 4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3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민선직 부시장을 비롯해 행사 담당 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행사장의 안전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춘향제 기간 동안 운영될 대동 김놀이, 개막식, 주요 공연 및 체험 행사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담당 부서와 경찰·소방·의료 지원기관이 협력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교통 및 질서 유지 대책을 강화하고, 주요 동선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

한편, 제95회 춘향제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남원 광한루 일원에서 개최되며,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경찰서 안보자문협, 만경강 둔치 환경정화

완주경찰서 산하 안보자문협의회(회장 김용현)가 지난 3일 만경강 둔치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경찰서 관계자와 안보자문협의회 위원,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해 강변과 둔치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플라스틱, 폐비닐, 캔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정리하며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맑은 강변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환경보호는 단지 청소가 아닌,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으로 앞으로도 뜻깊은 활동에 함께하며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지역인재 육성기금 전달

순창군이 지난 4일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에서 관내 학교에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으로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신종철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장과 남상길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했다.

전달된 장학금은 NH농협은행 지역인재육성기금으로, 순창군 관내 9개 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 등 특기적성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신종철 순창군지부장은 “이번 인재육성기금이 순창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지부에서는 순창군 교육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전통 도자기 장인 권운주씨 첫 명장 선정

순창군 ‘제1호 명장’ 탄생 35년 전통 도자예술 외길

순창군이 전통 도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지역 문화 발전에 공헌해 온 권운주씨를 순창군 제1호 명장으로 선정했다.

군은 지난 2월 12일부터 30일간 순창군 명인명장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2개 부문 4명의 신청자가 접수됐으며, 지난달 31일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명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번 제도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장인정신을 보유한 인물을 발굴했으며, 권운주 명장은 도자기 분야의 깊은 전

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첫 명장의 영예를 안았다.

권 명장은 35년 이상 도자 예술에 헌신하며 전통 기법과 현대적 감각의 조화를 통해 한국 도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무형문화재 청자 기능 보유자인 고현 조기정 선생의 수제자로서 청자 재현 작업에 깊이 몰두해 왔다.

현재 권 명장은 순창군의 ‘옹기체험관’을 위탁 운영하며 도자기 만들기,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문화와 교육과 체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순창군은 지역 내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매년 명인명장을 지정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인구 10만 달성 카운트다운…‘-157명’

완주군이 인구 10만 달성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지난 4일 완주군은 군청 1층 로비에 인구현황판을 설치하고, 인구 10만 달성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4일 기준 완주군 인구수는 9만 9,843명으로 10만 명 달성에 157명이 부족한 상태다.

완주군 인구는 지난 2월 대비 3월에 144명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군은 인구수를 매일 집계해 현황판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군은 ‘완주췌 주소 갖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완주군의 인구정책을 적극 알리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지속



지난 4일 완주군은 군청 1층 로비에 인구현황판을 설치하고 인구10만 달성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사진=완주군>

적인 인구 증가세는 그만큼 완주가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이번 카운트다운을 통해 10

만 인구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순창군>

순창군, 예비·창업자 대상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순창군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1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이 일자리 창출과 정주인구 확대를 목표로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 추진하며, 창업 및 창직 분야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순창군 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미가입자 또는 2024년 매출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기 창업자 가운데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변경이나 추가 등 창업과 유사한 활동이 가능한 자다.

특히 19~39세 청년층과 6차산업 관련

사업자, 순창군 특화산업 및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산업 종사자를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군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4월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창업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1등(1명) 800만 원, 2등(3명) 각 700만 원, 3등(3명) 각 600만 원의 초기 사업비를 차등 지급해 실질적인 창업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네트워크와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퇴비공장 악취저감제 제공…이달 신청 접수

남원시는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비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퇴비공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여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비료 생산업체 인근 주민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관내 유망기업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60,000천원(보조 80,000, 자담 80,000) 편성됐으며, 4월 중 신청접

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부속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 경우 심각한 악취와 수질오염 등의 문제와 더불어 주민 민원도 제기될 우려가 있어 관내 8개 생산업체 중 공장 내 악취 방제약품 살포시설(장비)을 보유한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천연 광물질, 식물성 성분, 미생물 등으로 구성된 살포용 액상 또는 분말 형태의 악취저감제를 지원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춘향제 전국 밴드 경연대회 본선 진출 20팀 확정

남원시에 주최하고 춘향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5회 춘향제 전국 밴드 경연대회 “풍 ROCK을 울려라!” 본선 진출 20팀이 확정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전국에서 122팀이 신청하였으며, 영상심사를 통해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 20팀이 오는 5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남원 사람의 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 3팀이 금상(400만원), 은상(200만원), 동상(100만원)을 수상하게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어린이 인형극 '바다나라 용왕님의 담배 대소동' 공연

순창군은 지난 3일 향토회관에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인형극 '바다나라 용왕님의 담배 대소동'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형태의 인형극과 레이저쇼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흡연과 음주의 위해성 △담배와 술의 성분 △간접흡연, 음주 등의 폐해 등에 대한 내용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함으로써 쉽게 배우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진행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익산 함열읍 기관단체협의회, 정읍 산불 이재민 돕기 성금

함열읍 행정복지센터는 기관·단체협의회가 정읍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함열읍 기관·단체협의회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정읍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생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상섭 의용소방대원, 고령주민 7명 생명 구해

대피거부 주민 설득시켜 도시사표창 수여예정



정읍시 소성면 화통리 화재 현장에서 고령의 주민 7명을 위험에서 구한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적인 활약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2시 14분 고창군 성내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30분만에 정읍시 소성면 금동마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먼저 상황을 파악한 사람은 정읍소방서 소성남성소방대 김상섭 대원(58세, 금동마을 이장)(사진)이었다. 김 대원은 당시 외출 중으로 위험을 직감하고, 서둘러 귀가하여 곧바로 주민 대피에 나섰다.

일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그냥 집에 있겠다”며, 대피를 거부하며 자택에 남아 있으려 했으

나, 김 대원은 끝까지 설득하며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애썼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세 차례에 걸쳐 어르신 7명을 인근 구룡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다. 그러나 이후 연기와 유독가스가 심해졌고, 김 대원은 구룡마을회관에 있던 대피자들을 다시 한 번 소성초등학교로 이동시키는 2차 대피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김 대원은 화재 진압을 위해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집 앞 수돗물과 농기구, 소화기를 이용해

초동 진화에 나섰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와 함께 끝까지 진화 작업을 지원하며 추가 피해를 막았다.

불길은 마을을 덮치며 주택 13채를 포함해 총 28동이 소실되는 피해를 냈다. 하지만 김 대원의 신속한 판단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을 지킨 김 대원의 공로를 인정해 도시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원예농협, 산불 이재민 성금 500만 원 기탁

정읍원예농협이 지난 3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5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지역사회 연대와 나눔 정신을 실천했다.

이번 기탁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정읍원예농협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기꺼이 기부에 동참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부설초 어린이회장단, 굿네이버스에 산불피해 성금

경남·경북 지역 산불 희망기금 조성 전달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지부장 김윤주)와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 전교어린이회장은 지난 3일,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기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장은 최근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에 지원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기금은 군산부설초 총동문화(회장 손성욱)로부터 받은 전교임원 당선 축하 장학금을 ‘산불피해 희망기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번 지원기금은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구호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 제공=굿네이버스 전북지부>



남원 알파스카이팀, 한일드론축구 친선대회 우승

남원의 드론축구동호회 알파스카이팀(단장 김중석)이 지난 30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PYC배 한일드론축구 친선대회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로 우승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는 남원 알파스카이팀(감독 오승권, 배재대 이정민, 남원고등학교 오찬상, 남원한빛중학교 오진형 선수)이 출전해, 일본의 강팀 미카와 돌핀스와 스카이호크팀을 상대로 모두 더블스코어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일본 미카와 돌핀스팀은 수준 높은 경기력을 선보인 알파스카이팀과의 지속적인 교류 의사를 밝혀, 향후 한일 간 드론스포츠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한편, 알파스카이팀은 일본 대회장에서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의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구이저수지 둘레길, 주민들 화단 조성

완주군 구이면 망산마을 주민들이 구이저수지 둘레길에 화단을 조성했다.

4일 주민 10여 명은 둘레길 일원 경관 조성을 위해 꽃밭을 조성하고, 마을환경을 정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중학 망산마을 이장과 노인일자리(시니어클럽) 참여자, 주민, 구이면 직원들이 참여해 잡초를 제거하고 수선화, 꽃잔디, 향카네이션 등의 다년생 초화류를 심었다.

그동안 김 이장은 마을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8년 동안 자발적으로 꽃밭을 가꾸었으며, 현재는 노인일자리(시니어클럽) 참여자들과 함께 꽃밭을 관리하며 마을 경관을 가꾸고 있다.

최은아 구이면장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꽃밭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에게 힐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무주군농민회 무풍면지회, 산불 피해 복구에 성금 기탁

무주군농민회 무풍면지회 회원들은 지난 3일 무풍면행정복지센터(면장 서종열)를 찾아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현웅 회장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불로 놀라고 여러가지 피해도 입었을 이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회원들이 자발적 모금한 성금이 값지게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과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무풍면지회가 동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희호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정읍 소성면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3일 최근 발생한 정읍시 소성면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350만원을 정읍시청을 통해 전북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최용훈 교육장은 “이번 성금 모금으로 우리사회가 밝고 정감 넘치는 사회임을 증명하였고,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이고, 친인척인 분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따뜻함으로 비추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가전제품

화재예방

자기관리

방법

제품관리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원코드를 빼주세요

연기나, 타는 냄새가 날 경우
전원코드를 빼고 해당 업체로
문의하세요

전원코드가 손상된 경우 사용
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문의하세요

주변관리

멀티콘센트 사용시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전원을 꺼주세요

전원코드를 뺀 후
마른수건으로
먼지를 청소 해 주세요

전원코드를 끝까지
꽂아 주세요

〈一事一言〉



뭘 바꿔야 하는지 가르쳐준 내란 윤 정권(2)

강수들
고려대 명예교수

이 아이들이 학교를 거쳐 직장
에 가더라도 그 대우가 비슷해진
다면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
려움 없이 꿈을 꿀 수 있을 것이
다.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대
학입시와 노동시장을 근본적으
로 바꿔야 한다. 그 내용과 방향
에 대해선 마을마다 지역마다 민
주적 토론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토론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외
모범 사례 탐구나 인문학 공부가
필요하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자본을 살찌우기 위해
서가 아니라 말이다. 무한한 자본
증식을 추구하는 시스템은 자원
고갈이나 기후위기로 상징되듯
자본가에게조차 미래가 없다. 보
수나 진보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
으로 대다수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이 중독되어 있는 것이 경제성장
중독증이다.

그러나 그 종말은 '6차 대멸종'
처럼 비참한 미래를 예고한다. 이
미 지금도 온갖 불평등과 양극화,
과로사와 실업의 공존이라는 이
상한 현상 등 심각한 문제를 노정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자본
의 이윤 기준이 아닌, '인간적 필
요' 기준으로 노동과 경제를 재구
성해야 한다.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
의 총량을 구하고 이것을 일할 수
있는 인구조로 나누면 된다. 효율
이 올라가면 연차적으로 노동시
간을 줄이면 된다. 모두 일하되,

조금씩 일하면 앞에 말한 모순들
이 대거 해소된다. 문제는 노동의
내용이다. 자본의 이윤 기준인가,
인간적 필요 기준인가, 이것이 핵
심이다. 이 기준으로 경제의 구조
개혁도 해야 하는데, 돈벌이 경제
가 아닌 살림살이 경제를 위해 과
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 내용과
절차는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한
다. 다만 그 방향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민
주주의'다.

복지개혁의 핵심은 '사회 공공
성 강화'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없어 복지가 안 되는 게 아
니라 개념 없는 도둑이 너무 많아
복지가 안 된다. 앞에서 노동시간
을 줄이자 했는데, 노동시간이 줄
면 안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잔업, 철야, 특근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 불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대비한 것이 복지개혁이
다. 대개 우리가 월수입에서 가장
많이 써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주거비(집세), 교육비(양육), 의료
비(건강), 노후(퇴직 후) 등이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월급에서 충
당할 게 아니라 평소에 내는 세금
으로 충당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굳이 월
급에서 빠져 나가지 않는다면, 우
리는 날마다 풍족하게 살 수 있
다. 좋은 책이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 '한 톱' 쏘는 데 그 무슨 큰돈
이 들겠는가? 특히 주거비는 싱
가포르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
싱가포르의 85%의 국민들에게

공공주택을 99년 동안 임대한다.
사실상 자기 집을 저렴하게 쓸 수
있다. 죽으면 돌려주면 그만이다.
15%의 부자들은 자가 주택을 소
유하되, 대신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나 청년들도 집 걱정을 안 해
도 된다. 교육비도 지금 한국은
사교육비만도 매년 30조에 이른
다. 대학 학비도 만만찮다. 반값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5개년 계
획'을 수차례 하면 무상교육이 가
능하다. 이런 식으로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가 공동의 책임감으로 풀면
된다.

그러면 과연 세금은 어떻게 해
야 하나?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낸다'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 최
근 해마다 50조 내외의 '부자 감
세'를 하는 바람에 적자 재정이
커졌다 한다. '부자 감세'나 법인
세 인하를 원위치로 하고, 동시에
내면 재정적자도, 국가부채도 줄
일 수 있다. 동시에 올해 예산(지
출 규모)은 670조 원이 넘는다.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빼먹을 것
인지 탐구하는 도둑들이 너무 많
다. 앞서 말한 국민들의 주거비
(집세), 교육비(양육), 의료비(건
강), 노후(퇴직 후) 등 일상생활
을 사회 공공성 차원으로 해결하
도록 돈을 쓰면 된다.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5개년 계획'으로, 될
때까지 하면 된다.

농촌개혁을 위해 농민 기본소
득과 유기농 농민 공무원제를 제

안한다. 20%에 불과한 곡물자금
물과 40% 내외인 식량자금물을
100%로 올려야 한다. 식량자금
은 곧 식량안보다. 이를 통해 농
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도시
보다 오히려 농어촌에 사는 게 살
의 질이나 행복도가 더 높게 만들
어야 한다. 동시에 헌법 121조에
나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질
적으로 살려서 부채지주를 근절
하고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
유하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 최근
들어 농지 보존과 역행하는 방향
으로 나라 정책이 잘못 가고 있
는데(쌀농사 축소를 해야 보조금
을 주는 행태),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 오히려 자급률 100% 달성
을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
다. 농지를 없애기는 식은 죽 먹
기지만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린다.
기후위기 등으로 식량생산에 어
려움이 닥치면 손에 돈을 들고도
굶어야 한다. 폭동이 일어날 것이
다. 한편, 일반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 소유의 '빈익빈 부익부' 현
상을 타파해야 한다. <계속>

본 칼럼은 시민연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대광법 국회 통과, 전북의 새로운 도약 기회

전북자치도의 숙원이던 '대도시권 광
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
으로 전주는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
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범위에 포함되
며, 이를 통해 전북의 교통 인프라 확충
과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된다. 법안 통과
를 위해 힘쓴 지역 정치권과 관계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이제는 법 통과
의 기쁨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보완이 필요한 시
점이다.

대광법 개정으로 전북은 광역교통망
구축에 있어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
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체계
의 확충이다.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
계의 인프라가 국가 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전주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교
통 편의성 증대에 그치지 않고 기업 유
치와 물류 산업 발전 등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전주와 완주, 익산, 군산을 포함
한 도내 주요 도시 간 이동이 원활해지
면서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집중되었던
교통망 개발이 전북까지 확대됨으로써,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마련
될 수 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
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주 여건 개선은 인구 유출을 방지
하고 유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광법 통과가 곧바로 전북 교
통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과 후속 조
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
체적인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을 수립해
야 한다. 교통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광
역철도 등 도로망 확충의 우선순위를 정
하고 체계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하다. 또한 법 개정으로 확보한
교통 인프라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
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효율성을 높
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교통시설
확충을 넘어 대중교통 시스템의 연계성
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전북이 진정한 대도시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통망 구축과 병행
해 산업 및 경제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
해야 한다.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접근
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활용한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교통망이 확충되
더라도 지역 내 경제 기반이 부족하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전북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단
순한 법 개정으로 그칠 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
권은 교통망 확충을 위한 철저한 계획과
재원 확보에 집중해야 하며 교통 인프라
구축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대광법 통과가 전북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
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때다.

문
화
재
열
전



낙동리 석조여래입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불교조각, 불상
-지정일 - 1974년 9월 27일
-시대 - 고려시대
-소재지 - 남원시 주생면 낙동리
산15-6번지

▲오늘의시

사월의 시 / 이해인

꽃 무더기 세상을 삽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세상은
오만가지 색깔의 고운 꽃들이
자기가 제일인양 활짝들
피었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새삼스레 두 눈으로 볼 수 있어
감사한 맘이고,

고운 향기 느낄 수 있어
감격적이며,
꽃들 가득한 사월의 길목에
살고 있음이 감동입니다.
눈이 짓무르도록
이 봄을 느끼며
가슴 터지도록
이 봄을 느끼며

두발 부르트도록
꽃길 걸어볼랍니다.
내일도 내 것이 아닌데
내년 봄은 너무 멀지요.
오늘 이 봄을 사랑합니다.
오늘 곁에 있는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4월이 문을 엽니다.

시인 약력 : 1945년 강원도 양구 출생. 필리핀
성 루이스대학 영문학과와 서강대 대학원 종교
학과를 졸업했다. 1976년에 첫 시집 '민들레의

영토'를 발간했다. 1997년 '해인글방'을 열고 문
서선교를 시작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부
산 가톨릭대 교수로 지선교정에서 '생활 속의

시와 영성' 강의를 했다. '내 혼에 불을 놓아' '시
간의 얼굴' 등 시집과 산문집 '두레박' '꽃삼' 등
의 작품을 남겼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완주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진안지국 010-2439-1721	장수지국 010-8626-6049	완주지국 010-3672-0308
정읍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 뉴-스

전북타임스 신문!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신문구독 282-9600

정읍시, 시민 곁에 머무는 정책 민생회복·지역경제 활성화 ‘박차’



정읍시가 2025년 민생회복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3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8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와 공공배달앱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전 시민 1인당 30만 원 지급

정읍시는 최근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위한 예산 310억원은 알뜰한 살림 운영을 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통해 마련됐다. 지방세나 교부세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절감 방안을 활용한 결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산 조정·절감액 229억원 ▲예비비 50억원 ▲추경 삭감분 30억원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 촉

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설 명절 동안 지급된 지원금 중 약 40억원이 사용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1일 기준 약 250억원이 사용돼 전체 지급액의 80%를 차지했으며 주요 사용처는 마트, 음식점, 주유소, 차량 정비소 등 생활 필수 업종으로 분석됐다.

정읍사랑상품권, 8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

정읍시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8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2024년 대비 200억원

민생회복지원금 전 시민 지급

정읍사랑상품권 규모 확대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

공공배달앱 ‘위메프오’ 운영

증가한 수준으로,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기존 분기별 발행 방식에서 월별 발행으로 변경해 시민들의 구매 편의를 높였다. 명절이 포함된 달에는 100억원씩, 평소에는 월 60억원씩 공급된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이며, 명절이 있는 달에는 최대 7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정읍사랑상품권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2024년 11월 말 기준 가입자가 6만 3000명에 달하며, 발행된 상품권이 조기 완판되는 등 높은

인기를 기록했다. 시는 가맹점 등록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안정지원금 카드 수수료 지원

정읍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하 사업자이며, 휴·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태양광 발전업 및 전자상거래업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3969명의 소상공인에게 19억 84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를 현금으로 환급하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전통시장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및 공공배달앱 운영

정읍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확대했다. 샘고을시장, 중앙로, 새암로, 우암로 인근이 새롭게 가맹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258개 추가되었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 지원을 받는 상품권으로, 가맹점 등록 시 고객층 확보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카드 수수료 부담이 기존 0.5~1.5%에서 0.25~1.25%로 낮아져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정읍시는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를 적극 운영하며 지역 내 배달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주문 21만 9000건, 누적 매출 54억 5000만 원을 기록하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정읍시는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읍시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앞으로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진안농협	백운농협	부귀농협	무진장축협	전북인삼농협
농협중앙회진안군지부장 변성섭 진안농협조합장 김문중		백운농협조합장 김연태 부귀농협조합장 김영배		전북인삼농협조합장 신인성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